



중1-1  
국어  
천재(정)

2026 중1-1 국어 천재(정호웅) | 1(2) 오우가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오우가」는 다섯 자연물의 덕을 예찬하는 연시조로, 제4수의 '솔'과 '눈서리'의 상징적 의미가 문제에 자주 출제됩니다. 제6수와 같이 지문 외의 부분을 보기로 제시하여 시어의 공통된 특성이나 차이점을 물을 수 있으니, '솔'과 '눈서리'뿐만 아니라 「오우가」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각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에 쓰인 '붕어빵'과 함께 관습적 상징과 개인적 상징으로 구분해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니, 시조의 형식과 함께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천(九泉)에 뿌리 곧은 줄을 그로 하여 아노라  
(제4수)

(나)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배 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멘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면 달아 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다섯 마리

내 열여섯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1.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 행을 세 마디로 끊어 읽는 3음보의 규칙적인 운율이 나타난다.
- ② 중장의 첫 음보는 3음절로 고정된다.
- ③ 일반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의 기본 형식을 지닌다.
- ④ 사설시조는 한 제목 밑에 평시조를 여러 수 이은 것을 말한다.
- ⑤ 고려 시대에 발생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창작되지 않는 우리 고유의 정형시이다.

2. 다음 중 이질적인 것은?

- ① 물                      ② 달                      ③ 꽃
- ④ 소나무                ⑤ 대나무

3. (가)에 쓰인 상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이 멀리 해야 할 부정적인 태도를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② 개인의 사상과 개성, 특수한 체험에 의해 독창적으로 사용되는 관습적 상징이 나타나 있다.
- ③ '꽃', '잎'은 나무를 시들거나 죽게 만드는 외부의 힘을 의미하여,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

- ④ 눈서리가 내려도 푸르른 ‘솔’은 고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신념을 굳게 지키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 ⑤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 관념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을 말하며, ‘솔’의 원관념은 ‘벗’이다.

**4. (가)에 나타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물)’를 인간이 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 ② ‘달’을 인간이 정복하고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생각한다.
- ③ ‘솔(소나무)’을 지조와 절개라는 이상적인 덕성을 지닌 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 ④ ‘죽(대나무)’은 고난과 시련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 ⑤ ‘석(바위)’의 거대함이라는 특성에 근거해 인간이 숭배하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5. (나)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나’는 1연에서 배 속에서 붕어 새끼 두 마리가 요동을 친다고 표현할 정도로 붕어빵을 많이 먹어 배부름을 느끼고 있다.
- ② 선재는 책가방 지퍼가 열려서 달아 준다고 말하며 ‘나’의 가방에 몰래 붕어빵을 넣어 주었다.
- ③ ‘나’는 차게 식은 붕어빵으로 인해 추위를 느끼고 있다.
- ④ ‘나’는 학교에서 우유 대신에 붕어빵을 받아왔다.
- ⑤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선재를 기다리다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6. (가)의 제4수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운명에 순응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태도
- ②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것을 경계하며 사는 태도
- ③ 주어진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남들보다 앞장 서서 나아가는 태도
- ④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이나 외부의 힘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한결같은 태도
- ⑤ 어려운 일을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털어놓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7. (가)와 (나)에 쓰인 상징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인이 전달하려는 바를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전달하여 독자들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기는 효과가 있다.
- ② 대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
- ③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과 같은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 ④ 상징의 의미가 정해져 있어서, 어떤 독자가 읽든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⑤ 원관념을 작품에 등장시키고 보조 관념을 생략함으로써 독자가 더 깊게 상상할 수 있다.

**【8~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東山)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술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

구천(九泉)에 뿌리 곧은 줄을 그로 하여 아노라

(제4수)

(나)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배 속에 봉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멘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면 닫아 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봉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봉어가 다섯 마리

내 열여섯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8. (가)와 (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초장, 중장, 종장의 구성으로 정해진 형식과 규칙에 맞추어 지은 시이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운율이 있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 ③ (가)는 한 장에 3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한다.
- ④ (가)는 한 제목 밑에 여러 수의 평시조를 엮은 엮시조이다.
- ⑤ (나)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체험을 바탕으로 소재를 선정하였다.

**9. (가)에 나타나는 ‘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하는 이가 경계하기를 권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② 제1수의 수석(水石)과 대비되는 소재이다.
- ③ 눈서리에 앞이 지지 않는 특성을 보여주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태도를 상징한다.
- ④ 극복해야 하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
- ⑤ 꽃이 피는 모습에서 뿌리가 곧음을 알 수 있다.

**10.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섯 벗뿐만 아니라 다른 벗들도 사귀어야 한다.
- ② 다섯 벗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는 힘을 길러내겠다.
- ③ 다섯 벗만 있으면 다른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다.
- ④ 다섯 벗 이외의 존재들은 모두 가치가 없으니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한다.
- ⑤ 다섯 벗이 없더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11.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대비되는 색채를 드러내어 시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 ③ 네 마디씩 끊어 읽는 것을 반복하여 운율이 형성된다.
- ④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여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읽는 이에게 생생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 ⑤ 역설법을 사용하여 시인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③

시조는 일반적으로 초장, 중장, 종장의 기본 형식을 지닌다.

- ① 한 행을 네 마디로 끊어 읽는 4음보가 반복된다.
- ②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된다.
- ④ 한 제목 밑에 평시조를 여러 수 이은 것은 연시조이다.
- ⑤ 고려 시대에 발생하여 오늘날까지 창작되고 있다.

### 2. [정답] ③

물, 달, 소나무, 대나무는 화자가 소개하고 있는 벗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덕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꽃은 제4수에서 솔과 달리 변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질적이다.

- ①, ②, ④, ⑤는 화자가 벗으로 소개하고 있는 덕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 3. [정답] ④

눈서리가 내려도 푸르른 '솔'은 고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신념을 굳게 지키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 ① 인간의 이상적인 덕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개인적 상징에 대한 설명으로, 이 시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되어 사용된 관습적 상징이 나타나 있다.
- ③ '꽃', '잎'은 환경이 바뀌면 변화하는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솔과 대비되는 시어이다.
- ⑤ 비유에 대한 설명이며, '솔'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 4. [정답] ③

화자는 (가)의 제4수에서 솔이 지닌 지조와 절개를 예찬하며 이상적인 덕성을 지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수(물)'를 벗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 화자는 제2수에서

물의 그치지 않는 영원함을 예찬하며 이상적인 덕성을 지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② (가)에서 화자는 동산에 떠오른 달을 '반갑'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인간이 정복해야 할 지향점으로 보는 관점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 화자는 제6수에서 '달'의 광명과 신언을 예찬하며 이상적인 덕성을 지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④ 화자는 (가)에서 '죽(대나무)'을 벗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 화자는 제5수에서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 겸허를 예찬하며 이상적인 덕성을 지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⑤ 화자는 (가)에서 '석(바위)'을 벗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참고: 화자는 제3수에서 바위의 불변성을 예찬하며 이상적인 덕성을 지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 5. [정답] ②

2연의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 내가 멘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면 담아 주었다'를 통해 선재가 그때 붕어빵을 넣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① '나'는 1연에서 배고픔을 느끼고 있다.
- ③ '나'는 붕어빵 덕분에 따뜻함을 느끼고 있다.
- ④ '나'는 학교에서 우유를 받아왔고, 붕어빵은 선재가 넣어 준 것이다.
- ⑤ 선재가 버스 정류장에 먼저 와 있었다.

### 6. [정답] ④

화자는 제4수에서 눈서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솔을 예찬하고 있어,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태도를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①, ②, ③, ⑤는 제4수를 통해 알 수 없다.

### 7. [정답] ③

상징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 깊게 표현하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 ② 대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작품의 깊이를 더한다.
- ④ 상징 표현에 담긴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 작품의 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 ⑤ 원관념은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

조 관념만 드러난다.

8. **정답** ②

(가)와 (나)의 갈래는 ‘시’로,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운율이 있는 말로 함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 ① (나)는 자유시로, 정해진 형식과 규칙이 없이 자유롭게 쓰였다.
- ③ (가)는 한 장에 4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가)는 한 제목 밑에 여러 수의 평시조를 엮은 연시조이다.
- ⑤ (나)는 일상의 경험에서 받은 감동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9. **정답** ③

‘솔’은 꽃 피고 잎 지는 다른 나무와는 달리 눈서리에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대상이다. 화자는 이를 통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지조와 절개를 말하고 있다.

- ① 화자가 예찬하는 대상이다.
- ② 제1수의 수석(水石)과 같이 화자가 예찬하는 소재이다.
- ④ 고난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는 존재이다.
- ⑤ 뿌리가 곧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눈서리에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10. **정답** ③

㉠은 언급한 다섯 번이면 충분하여 또 번을 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다.

- ①, ②, ④, ⑤는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③

‘내 벗이 V 몇이나 하니 V 수석과 V 송죽이라’와 같이 네 마디씩 끊어 읽는 방식을 반복하여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 ① 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지 않다.
- ② 대비되는 색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
- ⑤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12. **정답** ④

‘솔’은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곧은 의지를 지닌 삶의 태도를 표현하는 시어이다.

- ① (가)에서는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의 다섯 번이 모두 언급되고 있다.
- ② (가)에 나타나는 ‘수석’과 ‘송죽’은 ‘달’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대상이다.
- ③ ‘눈서리’는 고난과 시련을 상징한다.
- ⑤ ‘꽃’과 ‘솔’, ‘잎’과 ‘눈서리’는 유사한 속성을 가진 시어가 아니다.

13. **정답** ⑤

‘구천에 뿌리 곧은 줄을 그로 하여 아노라’를 통해, 솔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까지 곧음을 알 수 있다.

- ① 다른 나무의 특성이다.
- ② 솔의 특성과 관련이 없다.
- ③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를 통해 눈서리에 흔들리지 않는 특성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 ④ 수석, 송죽과 벗으로 지내는 것은 ‘나’이고, ‘송죽’의 ‘송’이 ‘솔’을 의미한다.

14. **정답** ②

(가)는 한 행을 네 개의 덩어리로 끊어 읽는 4음보의 음보율을 가지고 있다.

- ① (가)의 제1수와 제4수 모두 한 행을 4개의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
- ③ 한 음보가 3음절로 동일하지 않다.
- ④ (가)는 네 덩어리씩 끊어 읽기를 반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는 ‘내 벗이 V 몇이나 하니 V 수석과 V 송죽이라’처럼 끊어 읽을 수 있다.

15. **정답** ①

<보기>는 ‘달’이 밤에 높게 떠 만물을 비추는 것에 호감을 가지고 예찬하고 있다.

- ② <보기>의 ‘밤중의 광명’과, <제1수>의 ‘달’을 통해, <보기>가 예찬하는 것은 ‘달’임을 알 수 있다.
- ③ <보기>는 ‘보고도 말 아니하니’에서 과묵하고 진중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가)는 ‘솔’과 다른 나무가 어느 정도 대비되는 특성이 드러나지만, <보기>에는 대비되는 소재가 나타나지 않는다.